

「회」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간디스토마

맛있는 생선회가 사람 죽인다.

펄펄 뛰는 고기를 잘게 썰어 초고 추장에 찍어 먹는 회의 맛이란 직접 먹어보지 않고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진미 속에는 무서운 병마가 도사리고 있다.

국립 보건연구원에서선 현재 전국에서 간디스토마에 감염되어 있는 국민은 수백만명에 이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감염율을 차지, 회가 가져오는 무서움을 강조했다.

간디스토마의 치료제는 근년에 이의 개발에 고무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는 있으나 아직까지 특효약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따라서 간디스토마에 대해서는 예방에 힘쓰는 길밖에 없다.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는 습관을 버리고 반드시 익혀서 먹는 식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간디스토마는 「셀카리아」라는 육안

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새끼벌레가 콩만한 달팽이처럼 생긴 외우렁에 기생했다가 다시 민물고기에 옮겨 사는데 감염된 민물고기를 먹으면 다시 사람의 간 속에서 살게 된다.

셀카리아라는 벌레가 원충이다.

간디스토마는 간 속에서 번식하자는 않으며 어미벌레에서 만들어진 충란(虫卵)은 대변과 함께 밖으로 나와 다시 외우렁→물고기→인체(終宿主)의 간을 거쳐서 사는 과정을 밟게 된다.

간디스토마는 수명이 대개의 경우 15년~20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충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미벌레가 사는 동안 간에 병변을 일으켜 기능을 해치고 이의 기생수가 많을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유행지역도 전국으로 퍼졌다.

간디스토마는 한때 낙동강 유역을 주로한 영남과 호남등 남쪽 지방에서

만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6·25 전란으로 말미암은 남부 유행지역으로의 인구의 과대 이동, 육상 교통의 발달과 빈번해진 거주지 이전등으로 감염지는 거의 전국에 분포되고 있다.

지방병으로서의 유행지도 없어지고 산간지역을 제외한 평야지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경향이다.

더욱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경남 김해 지방과 경기도 고양 지방을 농후감염 지역으로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라 개, 돼지, 집쥐들도 간디스토마에 상당수가 감염되어 있어 이들이 같은 지역내에서 총란을 살포함으로서 간디스토마 전파에 관여하는 사실이 밝혀져 간디스토마는 전국의 어느 담수(淡水)에서도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물고기가 직접 매개

간디스토마를 옮기는 물고기는 주로 참붕어를 비롯한 피래미, 모래무지 백조어, 납지리 등 비교적 크기가 작은 잡어(雜魚)들이다. 몇년전 잉어, 붕어는 날로 먹어도 간디스토마에는 감염되지 않는듯이 보도가 되어 물의 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감염은 대단히 낮은 상태이나 동물실험을 통해서 이

들 고기에서도 간디스토마에 감염되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학계의 정설이 되고 결국 민물고기는 잉어, 붕어, 가물치등을 포함해서 날것은 삼가야 할것같다.

더우기 최근에는 레저붐으로 낚시 인구가 급증하고 내수면(內水面) 개발사업이 한창이어서 간디스토마 감염환자는 보다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디스토마가 있을 수 있는 담수는 외우렁이가 있어야하고 물살이 완만한 곳으로서 관개수로, 늪, 저수지 등 이름난 낚시터는 대개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간디스토마는 설령 날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급, 조리과정에서 오염되어 음식물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는 만큼 이점에 유의하여야 겠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감염지에서는 전혀 날생선을 먹은 일이 없다는 사람 가운데도 감염된 주민이 실제 적지않게 발견되고 있다.

요꼬가와 흠충도 조심할것

간디스토마 말고도 회로 감염 될 수 있는 디스토마로는 요꼬가와흠충(橫川吸虫)이란 것이 있다. 이 디스토마

는 소장에 기생하여 주로 소화기 장애를 일으키는데 지금까지의 자료로는 제주도과 남해안 지역의 담수어에서 높은 감염을 보이고 있다. 각종의 잡어에서 기생하는 것을 볼수 있으나 특히 맑은 물에 사는 유행지의 은어는 높은 감염율을 보인다. 요꼬가와흡충의 새끼벌레는 살속에도 기생하나 비늘밑에 많이 기생하는 것이 특이한 점의 하나이다.

이 기생충은 간디스토마와는 달리 구충이 가능하다. 바닷고기 회에서도 「아니사키스」(Anisakis)라 불리우는 고래, 물개등 해산 포유류의 위에 기생하는 기생충의 새끼벌레가 감염될 수도 있다. 이 「아니사키스」의 새끼벌레는 고등어, 아지, 갈치, 조기 등 각종 해산어류에 널리 기생하고 있다.

이 기생충은 우리몸 안에서 어미벌레로 자라지는 못하며 유충상태로 주로 위장계에 기생하여 혹이나 궤양등의 병변등을 일으키기도 하여 해산어

류를 날것으로 많이 먹어온 사람들은 최근 위장계의 암이나 궤양으로 진단되어 수술한 환자중에서 「아니사키스」 유충 감염에 인한 예가 점차 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강이나 저수지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소주 한잔을 들이키며 즐기는 회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어른들의 관습을 그대로 좇아 펄펄 뛰는 날고기를 아삭아삭 씹어 먹는 어린이들도 적지 않다.

4백 50만명 내외로 추산되는 간디스토마 감염자 수는 전국민의 15%에 해당되며 이 숫자 속에는 유행지에서 자라고 있는 4~5세의 어린이로부터 국민학교 아동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국립보건연구원의 통계는 소년기 아동에게 간디스토마가 큰위험을 주고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진미를 찾다가 일생을 병마와 다투는 오류는 되도록 피해야할것이다.

